

인턴 대상 설문 – 이재형

1번 질문

리더로서 팀원 두 명을 선택하게 된다면 B와 D를 선택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팀워크와 개발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B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팀워크에 기여하는 팔로워형 팀원입니다. 제가 리더로서 업무를 지정해준다면 책임지고 주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역할을 다해낼 것입니다. 또한,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만큼 개발회의에도 꾸준히 참석할 것이고 회의에서 모든 팀원이 모여서 업무와 문제점에 대해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D는 다수의 앱 개발 프로젝트 경험으로 넓은 개발 스펙트럼을 갖춘 팀원입니다. 다수의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앱을 제작하며 개발역량을 쌓았을 것이고 개발 기간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필요한 개발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2번 질문

B, D를 팀원으로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팀원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B는 일은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 소극적인 성향이고 D는 친화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먼저 나서서 업무에 관해 토론을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에 필요한 정보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해가 생겨서 팀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큼니다.

비슷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이디어 부재입니다. B는 아이디어를 잘 내지 않고 D는 경험은 많지만, 친화력이 매우 부족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아이디어 및 목표가 필요하므로 시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만 끌어낸다면 B, D의 장점은 단점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소통을 이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장점인 분석력과 책임감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우선 두 팀원과 따로 면담하여 관심사, 업무스타일 등의 공통점을 찾아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자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는 B에게는 D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부여해서 친화력이 부족한 D에게 먼저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매일 정기적인 5분 회의를 만들어서 아침에는 서로가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퇴근 전에는 서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리더로서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매일 사소한 대화라도 걸며 B와 C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